

전승의 환희를 세겨주는 지하철도역

◆ 전승 역을 찾아서 ◆

평양의 려명거리입구에 수도시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는 지하철도역인 전승역이 자리잡고있다. 최근에 이 전승역도 새 세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개진되어 오가는 길손들을 반겨주고있다.

지상역사의 흰 지붕을 떠받치고있는 붉은색의 기둥도 품위가 있고 천정과 벽면이 부각장식으로 되어있는 지상역사의 내부도 좁쌀을데

가 없다. 밤하늘가에 터져오르는 축포를 형상한 천정조명장식은 전승의 그 환희로왔던 축포인듯싶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위훈을 세운 용사들에게 안겨주는 꽃보라인가 크고작은 별찌모양들이 새겨진 계단승강기의 벽면들도 이채를 띠고있다.

각종 사진작품들과 조영등으로 더욱 현란하고 뜻있게 꾸려진 지하철결복도구간을 지나면 지하철도역자들

라는 역흥이 나진다. 중심벽면의 대형벽화는 철세위인의 현명한 명도아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인민의 환희와 긍지를 격동속에 돌이켜보게 해주고있다.

지하철 기둥들에는 전희의 나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온 영웅전사들의 모습들이 새겨져있다. 지하철도역구내의 그 어디에서나 전승의 력사가 살아

있는 역흥이 나진다. 어제 지나간 이야기라고만 하라. 공화국의 력사는 전승의 축포가 오면 이후에도 적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련승만을 이룩해온 긍지높은 나날들이다. 승리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도 위대한 령장의 손길아래 면면히 이어지고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주고있으니 위인을 모시어 언제나 강하고 이기는 조선이다.

정면들과전의 자랑찬 승전

고를 울리며 사람들은 출근길에 이 지하철도역사에 들어서고 보람찬 하루일을 끝낸 자랑안고 기쁨속에 이역사안에 다시 들어서곤 한다. 지하철도 전승역은 말그대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과 그 빛을 이어 승리의 력사를 펼쳐가는 오늘의 세대가 만나는 곳이다.

그때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발걸음도 더욱 환희롭고 씩씩하게 안겨온다.

본사기자 김 철



국가로부터 받는 살림집 혜택

본사기자 김 철

가볍고 질 좋은 운동신발

나라의 신발공업부문에서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되고있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운동신발들이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이곳 신발공장에서는 도안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생산공정은 물론 현대적인 건축설비를 갖추어놓고 신발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경쟁의 불길을 일으켜 종목별 전문체육신발과 함께 연령별, 대상별, 직업별 특성에 맞게 편리하면서도 가볍고 튼튼한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신발의 목소리들은 려명거리에서만 울려나오는 것이 아니다. 창건거리와 은하과학거리, 위성과학자주력지구, 삼지연시의 살림집들과 중평남



본사기자 김 철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산업미술분야의 재능있는 창작가

더 밝고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오늘의 세계, 나날이 율동하고 문명해지는 우리의 생활, 보다 좋아질 래일을 설계하는데서 산업미술의 역할은 자못 크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는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들을 창작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재능있는 창작가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착상의 명수, 도안창작의 1번수로 소문난 천영일창작가도 있다.

이름도 안다. 그것은 상품의 모양과 색깔, 재료와 속성, 상품의 사회적 영향력, 세계적인전주세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령역을 포괄하였습니. 상표도안가는 경제전문가, 대중심리전문가가 되어야 했고 기발한 착상력과 독특한 구상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총보사 등 여러곳을 오가며 상품화, 규격화, 심리학, 인쇄공학, 재료학, 위생학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 책들을 파고들었다.

우수하게 평가된 도안들이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상수법들과 창작기법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남다른 도안감각과 착상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해도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으로 만들자.

이것은 그가 도안창작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으로 되고 있다.

《상표도안이나 마크도안 창작은 독특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심리적충동을 불러일으키야 하는것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에 새 도안을 창작할 때마다 많은 고심을 하곤 합니다.》

그는 하나의 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무려 수백번의 모의를 거듭한다고 한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진취적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될 때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명한 대동강맥주상표도

본질적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살리면서 주제가 명백하고 한눈에 안겨오게 창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옷에 새기면 승마복을 상징하게 되고 보급실에 붙이면 승마지식보급실을 상징할수 있게 집약화되고 통속화된 이 마크도안이 명도안으로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명도안을 찾아주시는 계기로 산업미술창작가들과 일군들의 안목과 일반세에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에 심취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창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었다.

안내하던 일군은 그가 바로 도안창작의 능수로 알려진 형상수법들과 창작기법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남다른 도안감각과 착상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의 도안을 창작해도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으로 만들자.

이것은 그가 도안창작에서 견지하고있는 원칙으로 되고 있다.

《상표도안이나 마크도안 창작은 독특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심리적충동을 불러일으키야 하는것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에 새 도안을 창작할 때마다 많은 고심을 하곤 합니다.》

그는 하나의 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무려 수백번의 모의를 거듭한다고 한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진취적인 사색, 풍부한 상상력이 결합될 때 명도안이 나올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유명한 대동강맥주상표도

안과 들쭉살상표도안, 중앙동물원마크도안, 원산갈매안판광지구마크도안을 비롯하여 모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인민들의 즐거움 문화정서생활까지,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중앙동물원을 상징하는 마크는 밝은 양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착상에 기초하여 귀엽게 웃는 짝짝한 호랑이를 형상하였습니다.》

원산갈매안판광지구마크도안을 창작할 때에도 그는 갈매기 날아에는 푸르른 바다와 백사장, 돛배 등 몇가지 요소로 해수욕장의 특성을 재치있게 집약화하여 형상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의 재능이 가져온 성공의 열매라고 하랴. 보석도 빛을 주어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수 있듯이 인간의 재능도 키워주고 풀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천영일창작가는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그가 창작한 대동강맥주상표도안도 있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대동강맥주상표도안을 새롭게 창작하리라 마음먹고 달려들었다.

그는 사색을 거듭하면서 대동강맥주라는 이름과 청류다리를 부각시키고 바탕색을 검은색과 녹색으로 강하게 대조를 주는 방법으로 대동강맥주상표를 형상하였다.

그후 또다시 대동강맥주상표도안을 보아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좋다고 선정된 대동강맥주상표가운데 흰색으로 대동강맥주라고 쓴 것이 있는데 검은색으로 써넣으면 더 좋겠다고, 그리고 공장은 도안중심에 형성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도 상표도안의 바탕색과 어울리게 검은색으로 글을 쓰고 흰테두리를 두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창작가들도 수정한 대동강맥주상표도안을 보고 아- 하고 탄성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도안을 창작할 때마다 잊지 못할 대동강맥주상표도안을 되

명도안으로 되기까지

기자가 천영일창작가에 대해 알게 된것은 얼마전 중앙산업미술국 전시회장을 찾았을 때였다.

새형의 무궤도 전차형태도안, 5t급화물자동차형태도안, 지하철도차 1호형태도안, 삼지연강자가 투쟁산공방마크도안, 플라 품들어판마크도안, 평양기초 식품공장마크도안, 아동들이정형 성안을 비롯하여 전시된 상표도안, 광고도안, 마크도안들을 깊은 감흥속에 돌아보던 기자는 무척 인상깊은, 훗날리는 말갈기를 형성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 앞에서 접목을 멈추었다.

조선화단본질로 달리는 말의 운동감을 박력있게 형상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은 간결성과 집중성, 상징성을 잘 보강한것으로 하여 불수록 경관을 자아냈다. 안내하던 일군이 지난 시기 전국산업미술전시회에서 1등을 한 마크도안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들려주었다.

《당시 현상모집으로 출품된 이 도안은 심의원들의 도식적인 안목으로 하여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였읍니다. 그때 당선된 24점의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들중에서 이 도안은 마지막으

를 정확히 표현할줄 아는 뛰어난 재능으로 미술전문가들을 놀래켰다.

그후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에서 배운의 나래를 펼쳐온 그는 전문적인 상표도안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상표는 상품의 얼굴이다. 훌륭한 상표는 상품의 문화성과 예술성을 높여준다.

하나 창작초기시 그가 내놓은 상표도안들은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현실에 도입되지 못한 상표도안들을 보면

새겨보곤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창작가들을 믿어주고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이 어려웠고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을 만들어내리라는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로운 착상으로 온몸을 불태운 그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창작한 중앙동물원마크도안과 원산갈매안판광지구마크도안을 비롯한 여러 도안들을 몸소 보아주시며 창작적안목을 띄워주시었다.

《저의 눈앞에는 도안창작의 나날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명안으로 걸음걸음 손잡이 이끌어주시신 철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성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저에게 무슨 타고난 재능이 있어 착상의 명수가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 착상의 날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와 우리 원수님께서 달아주시는것입니다.》

하기에 그는 신인창작가에게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 착상의 리리, 그것은 믿어주고 내세워주시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겨안고 시대가 바라는 높이에서 매일 매 순간 탐구와 사색으로 이어가는 불타는 창작열의 열매라고.

오늘도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할 예국의 마음을 안고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 더욱 행복해질 생활의 모습을 도안에 담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식

